

## 언어논리영역

## 1.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lt;보기&gt;에서 모두 고르면?

(가) 미셸 푸코(Michael Foucault)는 몸의 기능이나 외형에 의해 구분되고 차별받는 몸에 주목하고 이러한 위계적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이론적 틀을 제안하였다. 몸이라는 매체는 불평등과 억압을 양산하게 되었고 서열구조로서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푸코는 몸의 다름이나 위계화를 파생시켰던 사회 속의 구조를 해체하고 유동적인 변화와 전복이 가능한 정치적 장으로서 몸을 재조명하였다.

푸코는 몸이 사회 속 테두리 안에서 권력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정적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고 해석하였다. 그가 말한 몸의 정치는 사회 속 문화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몸의 규정에 대항하는 정치적 저항 과정이다. 진정한 몸의 정치는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사회적인 것에서부터 일상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의미로서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미시적인 부분까지 확장되고 구체화된다.

푸코는 포스트모더니즘 이전 시대 개인의 몸은 강압적 장치와 권력에 의해 감시, 관리, 훈련되어 전적으로 국가나 강자에게 장악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바뀐 권력, 즉 분산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권력에 의해 몸은 더 이상 권력에 지배받지 않고 양립하는 투쟁적인 몸이 되었다. 이러한 몸은 스스로 주관성을 가지고서 권력을 행하거나 지휘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인 대립과 저항의 힘을 가진다. 주체적이고 차별화된 몸으로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고 적극적이나 비판적이지 않은 저항을 만드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다.

(나) <슈렉>시리즈에서 아름다운 몸은 철저히 붕괴되었다. <슈렉>시리즈의 남녀 주인공 슈렉과 피오나는 뚱뚱하고 4등신의 비율을 가진 녹색피부의 흉측한 괴물이다. 슈렉의 복식은 시리즈 안에서 시종일관 낡은 셔츠에 가죽부츠 하나로 통일된다. 슈렉은 성의 외곽 지역 숲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자립형 인물이다. 슈렉의 몸은 근육질로, 하얀 피부에 마른 몸을 가진 프린스 차밍의 몸과 대비된다. 슈렉의 몸은 ‘괴물’의 일(오물 묵욕, 숲 파괴 등)을 통해 만들어진 자연스럽고 강인한 혁명적 몸이며, 이러한 슈렉의 건강한 몸은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현대사회의 보이는 몸의 선과 악을 생각하도록 한다.

피오나를 통해서도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와 역할에 변화를 주었다. 성형과 외모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과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집중하고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외형의 공주와 왕자 등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다. 영화에서 추구하는 몸은 단순히 건강한 몸을 넘어서 자유를 가진 몸을 의미한다. 슈렉과 피오나는 잠시 인간의 몸으로 변하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 인위적으로 바뀐 비정상적인 몸에 대해 스스로를 지적한다. 반드시 아름다운 몸만이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음을 암시하며 뚱뚱하고 못생긴 괴물이었던 본연의 모습을 찬양한다.

(다) <슈렉>시리즈에 표현된 몸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치적으로 공정한 대안이라기보다는 미 자유주의자의 몸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이러한 시선을 통해 보수주의자의 몸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드러낸다. 먼저, <슈렉>에서도 선과 악은 등장인물의 몸의 아름다움에 의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파과드 영주는 매부리코에 단신이며, 요정 대모 역시 단신에 비만인 몸으로서, 릴리안 왕비와 피오나 공주의 균형잡힌 외모와 구별된다. 아름다운 몸이 선한 영혼을 반영한다는 아이디어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서 지적된 중요한 문제점이기도 했다. 슈렉과 피오나가 아름다운 몸을 버리고 괴물의 외양을 선택한다는 결말에서, 이 영화는 마치 몸에 대한 찬사를 포기하고 있는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 변화한 피오나와 슈렉의 몸은 주인공으로서 그들의 신체적 조건을 상기시킨다. 슈렉은 변신했을 때 건강한 육체노동자의 몸을 하고 있으며, 피오나는 근육질의 여전사적 몸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닌 몸, 즉 오늘날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의 몸이 표현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슈렉의 몸은 귀족적이고 매끈한 프린스 차밍의 몸과 대비되며, 미식축구 선수나 소방관 등 미국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건강한 근육질의 몸이다.

## &lt;보 기&gt;

- ㄱ. (가)의 푸코의 관점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여성들이 과도한 다이어트에 열중하는 것은 마른 몸을 통하여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몸의 정치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 ㄴ. (가)와 (나)에 비추어 볼 때, 주로 8등신 몸매의 백인으로 그려지는 전통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은 권력과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복종적인 몸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ㄷ. (가)와 (다)에 비추어 볼 때, 슈렉과 피오나는 푸코가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몸의 개념을 재현하고 있다.
- ㄹ. (다)의 관점에서 볼 때, <슈렉>에서도 기존의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몸의 아름다움을 통해 선과 악을 드러내고 있다.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 ③ ㄴ, ㄷ    | ④ ㄴ, ㄹ |
| ⑤ ㄴ, ㄷ, ㄹ |        |

2.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항공기 결빙은 기체에 달라붙으므로 착빙(着氷)이라고 부른다. 착빙은 기체 착빙과 기관 착빙으로 나뉜다. 먼저 기체에 달라붙는 착빙으로는 서리 착빙(frost icing)이 있다. 이는 활주로에 주기 중인 항공기에 잘 발생하며, 맑은 날 복사냉각에 의해 공기 온도가 0℃ 이하로 냉각될 때 항공기 기체에 접촉된 수증기가 승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리가 내리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 외에 비행 중에도 서리 착빙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빙점 이하의 아주 저온인 기층에서 비행해 온 항공기가 급격히 고온다습한 공기층으로 비행할 때 발생한다. 서리 착빙은 새털 모양의 부드러운 얼음의 피막 형태로 가벼우며 얼음의 중량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리가 붙은 그대로 이륙하면 공기흐름이 흐트러져 이륙 속도에 도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거친 착빙(rime icing)이 있다. 거친 착빙은 저온인 작은 입자의 과냉각 물방울이 충돌했을 때 생기며, 수빙(樹氷)이라고도 한다. 거친 착빙은 물방울이나 과냉각 물방울이 많은 -20℃~0℃의 기온에서 주로 발생하며 날개 등 항공기 기체 첨단부의 풍상 측에서 잘 발생한다. 다음으로 맑은 착빙(ice icing)이 있다. 거친 착빙에 비해서 비교적 온도가 높은 -10℃~0℃의 기온에서 큰 입자의 과냉각 물방울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 항공기가 눈, 싸락눈, 작은 우박 등 고체 강수가 섞인 0℃ 이하의 비 또는 물방울로 된 구름을 통과할 때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우빙(雨氷)이라고도 부른다. 이 착빙은 항공기의 표면에 굳게 붙어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마지막으 혼합 착빙이 있다. 맑은 착빙과 거친 착빙의 혼합형으로 온도가 -15℃~-10℃사이인 적운형 구름 속에서 자주 발생한다. 한편, 기체가 아닌 기관 내부에 결빙이 일어나는 것을 기관 착빙이라고 한다. 기관 착빙은 공기 흡입구나 기화기의 내부에서 연료의 증발이나 공기의 가속에 의한 단열냉각의 결과로 일어난다. 따라서 구름이나 강수 속을 비행할 경우뿐만 아니라, 구름이 없는 공간을 비행하고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보 기>—

- ㄱ. -5℃에서 착빙이 발생한다면 맑은 착빙일 것이다.
- ㄴ. 항공기 기체에 달라붙은 서리가 이륙 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 ㄷ. 구름이 없는 공간을 비행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착빙은 기체 착빙이다.
- ㄹ. 수빙(樹氷)과 우빙(雨氷)이 혼합된 착빙은 온도가 -15℃~-10℃ 사이인 적운형 구름 속에서 자주 발생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사람들은 훈련, 사랑, 생활 등의 경험을 통해 성장함에 따라 세계와 그 세계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해도 성장하게 된다. 반대로 사람들이 훈련, 사랑, 생활 등의 경험을 통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이해도 성장하지 못한다. 그 결과 사람들마다 인생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의 폭과 그 세련됨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편차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가 곧 우리의 종교이다. 비록 부정확하고 제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삶에 대한 이해(세계관)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종교를 너무 편협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즉, 우리는 종교란 반드시 신을 섬겨야 하며 어떤 의식이나 예배 집단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교적이라고 말하기 쉽다. “불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라든가 “신비주의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우리는 종교를 커다란 원목에서 잘라낸 한 조각처럼 일률적으로 보려고 한다. 이런 단순한 개념 때문에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사람 모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때로는 꼬박꼬박 미사에 참여하는 가톨릭 신자보다 무신론자나 유대교도가 기독교 윤리에 더 철저할 수도 있음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우리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보다 더 좁은 이해 범주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개인을 둘러싼 문화, 부모, 어린 시절의 경험 등이 우리 이해의 범주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 세계가 이렇게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서로 접촉해야만 할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현실의 본질에 관해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견해가 각 개인이 이미 경험했던 작은 우주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자신이 지닌 견해가 옳다고 믿으며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작은 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전쟁이 성전(聖戰)이 되는 것이다.

—<보 기>—

- ㄱ. 특정한 종교윤리에 더 철저하면서도 스스로는 그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ㄴ. 무신론자는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이라고 할 수 없다.
- ㄷ. 개인의 종교는 훈련, 사랑, 생활 등의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 ㄹ.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4.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한 사람의 마음 바깥에 어떤 외적 사태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사태와 그가 만나게 될 때, 이 사태가 가지고 있는 모양은 그의 마음으로 즉각 침투해 들어온다. 그것은 인상(印象)을 통하여 이 마음을 때리게 된다. 인상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또 선택 사안도 아니다. 인상은 자신의 힘으로 강제로 우리 마음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러나 이 인상을 의식하게끔 하는 동의(同意)는 자발적이며 우리의 선택에 의해 일어난다.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쳐서 혹은 지진 때문에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서 어떤 무서운 소리가 들릴 때, 혹은 전장에서 어떤 위험을 알리는 급박한 전령의 소리가 들릴 때, 현자의 마음조차도 잠시 동안 여기에 필연적으로 반응하고 수축되고 창백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악 혹은 나쁜 것이 가까이 있다고 그가 믿는 데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급속한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어떤 운동의 발생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 현자는 그 상황에서 곧 동의를 보류한다. 저 무서운 인상들에 대해서 말이다. 그는 그 인상들을 따지고 거부하며, 인상들 안에 그가 두려워할만한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인과 범부(凡夫)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즉, 전장에서 어떤 위험을 알리는 급박한 전령의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는 범부의 마음을 때림으로써 이 소리가 혹은 이 소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무섭다는 인상을 그에게 준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는 이것들이 참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즉, 그는 촉발되기 시작한 그 사건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다고 승인해 줌으로써 믿음을 인상 위에, 말하자면, 철썩 붙여버린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현자는 짧은 그리고 표면적인 운동을 경험하고 이를 안색과 표정을 통해 보이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는 곧 이런 종류의 인상들에 대해서 그가 항상 자신 안에 지니고 있었던 믿음의 힘과 안정성을 맞세우기 시작한다. 그 믿음의 내용은 그것들은 전혀 두려워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기〉—

- ㄱ. 인상은 대상에 달려 있고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 ㄴ. 현인은 두려워할만한 물리적 사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전혀 두려워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는다.
- ㄷ. 현인은 범부와 달리 어떤 위험을 알리는 외적 사태를 경험할 때 주어진 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ㄹ. 동의는 사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태에 관한 나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 ①  $\neg$   
②  $\perp$   
③  $\sqsubset$   
④  $\perp, \sqsubset$   
⑤  $\sqsubset, \sqsubset$

5.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허셀에 의해 야기된 소규모의 패러다임 변화는 1801년 이후 천문학자들이 여러 소행성들을 급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다. 그 크기가 작았던 까닭에 소행성들은 허셀을 놀라게 했던 이상 현상으로의 확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성을 더 찾아낼 준비가 된 천문학자들은 표준 기구를 써서 19세기의 전반 50년 동안 20개의 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나) 그 결과 적어도 별 모양으로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뚜렷한 원반체를 알아 볼 수 있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었으므로, 그는 판정을 미루고 더 자세히 조사하게 되었다. 조사한 결과 별들 가운데서의 천왕성의 운동을 밝혀내게 되었고, 따라서 허셀은 자기가 새로운 혜성을 보았다고 공표하였다. 관측된 운동을 혜성궤도에 맞추려는 부질없는 시도 끝에, 얼마 지나지 않아 허셀은 그 궤도가 행성인 것 같다고 제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주장은 수용되었다.
- (다) 1690년부터 1781년 사이에 적어도 17회에 걸쳐 유럽 최고의 몇몇 관측자를 비롯한 많은 천문학자들이 지금의 천왕성 궤도 자리에서 별 하나를 보았다. 이 그룹에서 가장 뛰어난 한 관측자는 실제로 1769년에 나흘 밤을 연달아 그 별을 보았으나, 그 정체를 알려줄 수도 있었을 별의 운동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다. 12년이 지난 뒤 바로 그 물체를 처음 관측하면서 윌리엄 허셀은 자신이 손수 만든 훨씬 개량된 망원경을 사용하였다.
- (라) 이 외에도 천문학사에는 과학적 지각에서 패러다임이 유발한 변화에 대한 각기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으며, 그 중 몇 가지는 좀 더 확실해 보인다.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처음 제안된 후 반 세기 동안 서구 천문학자들이 종래에는 불변이라 여겼던 천상 세계에서 변화를 처음 목격했던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전통적인 천문 기구를 사용하면서, 16세기 말기의 천문학자들은 그 이전에는 불변의 행성과 항성에게만 허용되던 공간에서 몇대로 떠돌아다니는 혜성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었다. 옛 대상을 옛 기기로 관측하면서 천문학자들이 그토록 쉽고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보았다는 사실은, 코페르니쿠스 이후의 천문학자들이 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마) 천문학자의 세계에는 몇 개 줄어드는 항성과 하나가 늘어난 행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관측되었다 말았다 했던 천체가 1781년 이후에는 달리 보이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종래의 패러다임에 의해 제공되는 지각 작용의 범주(항성 또는 혜성)에 더 이상 들어맞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천문학자들로 하여금 행성인 천왕성을 볼 수 있도록 한 시각의 변환은 이미 관측된 이 물체의 지각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지는 않다. 그에 따른 결과는 보다 광범위했다.

- ① (가)-(다)-(나)-(마)-(라)
- ② (가)-(다)-(나)-(라)-(마)
- ③ (다)-(마)-(나)-(가)-(라)
- ④ (다)-(나)-(마)-(가)-(라)
- ⑤ (다)-(나)-(가)-(라)-(마)

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어떤 개인이 얼마나 사교적인가(social)를 테스트해 보기 위하여 뉴욕 맨해튼의 전화번호부에서 뽑은 248개의 성(姓) 목록을 주고 그러한 성씨를 갖는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보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하나의 성에 대해 복수의 사람을 생각해도 좋은데, 말하자면 리스트에 있는 존스(Jones)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3명 알고 있다면 3점이 추가되는 것이다. 최근에 이민 온 20대 초반 학생들이 대부분인 맨해튼 시립대학 학생들에게 테스트해 본 결과 평균 점수는 21점이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리스트에 있는 성씨의 사람을 평균적으로 21명 정도 알고 있는 것이다. 실험 결과 주목할 만한 발견은 점수의 분포였다. 대학생들 집단의 점수 분포는 2점에서 95점까지였고, 고학력 백인 교수 집단의 최저점은 9점이고 최고점은 118점이었다. 거의 비슷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최저점은 16점인 반면 최고점은 108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총 400여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사회집단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소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솜씨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커넥터(Connector)라 할 수 있다.”

(나) 현대사회의 실체들은 대체로 복잡계(complex systems)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 이면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하나를 네트워크로 표현하여 모델링하는 복잡계 네트워크 방법으로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가 대표적이다. 이 모델은 실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 그들의 모양이나 구조를 지배하는 법칙 등에 대해 최초로 설명하게 된 모델로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특정 확률에 따라 서로 무작위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에 기반한다. 무작위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의 노드들이 평균적으로 균일한 링크 수를 가지는 균일한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균일한 링크 수는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실제로는 각 노드의 링크 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통계적인 분포(정규분포, 포와송 분포)로 나타난다. 이 모델에서 노드의 차수는 종 모양 분포를 나타낸다. 종 모양 분포의 꼬리부분은 평균 링크수로부터 지수적으로 감소하므로 차수가 아주 많다거나 아주 적은 노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정점인 평균값에 의해 지배되는 네트워크의 모양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링크 개수는 평균값(정점)을 나타내며, 소수의 링크 또는 다수의 링크 개수를 가지는 노드의 수는 극히 적다.

<보 기>

- ㄱ. (가)에 따르면, 고학력 백인교수는 맨해튼 시립대학 학생보다 전화번호부 리스트에 있는 성씨의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다.
- ㄴ. (나)에서 주장하는 무작위적 세계에서는 (가)에서 제시한 커넥터(Connector)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ㄷ. (가)에 의하면 계층에 상관없이 소수의 커넥터(Connector)가 존재한다.
- ㄹ. “전체 인구의 20%가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경제학 원리는 (나)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7.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신(神)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합당하다. 하늘, 태양, 달의 운동 및 회전이 보여주는 규칙성과 안정성 그리고 모든 별들의 다채로움과 조화로움과 유용함과 질서가 그 이유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준다. 예컨대 누군가가 어떤 큰 집이나 공공 체육관에 들어가서 이 모든 시설들의 계획성과 조화 그리고 절제미를 갖추고 있는 질서를 볼 때, 그는 이것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이것들을 관장하는, 그리고 이것들을 초래한 어떤 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엄청난 운동의 규모, 주기적 전환의 규칙성이 엄청난 것들, 그토록 많고도 위대한 것들의 질서정연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기만 없는 무한한 지속성을 볼 때, 그는 자연의 이 위대한 운동이 어떤 지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더더욱 확신할 것임에 틀림없다.

(나) 당신이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크고 아름다운, 그러나 비어 있는 집 하나를 보게 되고 길을 멈춰 잠시 같이 구경한다고 해보자. 이 때 당신과 당신의 친구는 집 주인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쥐들과 족제비를 위해 지어졌다는 생각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단히 질서 있는 우주, 대단히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천체, 엄청난 힘과 광대한 규모를 가진 바다와 대륙이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 불사의 신들의 집은 아니라고 당신 친구가 주장한다면, 당신이 보기에 그 친구는 명백히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 ① (가)는 계획성과 절제미를 갖춘 질서있는 시설은 우연히 생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가시적인 결과로부터 비가시적인 원인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 ③ (가)는 신은 지성 자체이거나 지성으로 대표되며, 하늘·태양·달의 운동과 같은 자연 세계의 거대한 운동은 지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 ⑤ (나)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1991년 어느 더운 여름날, 파르마 대학교의 한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연구자들은 뇌의 잠재의식에 관한 실험을 위해 원숭이 한 마리의 두개골에 전극을 꽂아두고 관찰하고 있었다. 전극이 꽂힌 부위는 움직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을 관장하는 대뇌 피질이었다. 그 원숭이는 차분하고 즐거워 보였고, 두개골에 꽂힌 전극과 실험실 사람들에게 꽤 익숙해진 듯 보였다. 실험실 사람들도 원숭이를 밝고 쾌활한 친구처럼 대했다.

그날은 날씨가 더웠던 탓에, 휴식 시간이 끝난 후 실험실 조수 한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 원숭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것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실험실 조수가 아이스크림을 입술로 가져가자, 원숭이의 뇌에서 전기활동이 격렬해졌다. 순식간에 정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 원숭이는 뇌 속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신체적 움직임이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 조수를 따라 원숭이의 뇌는 자신의 팔에게 아이스크림을 입술 쪽으로 들어올리라고, 침을 흘리라고, 만족감을 느낄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실제로는 쳐다보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원숭이는 그의 뇌에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 원숭이 실험은 저명한 과학자 자코모 리츨라티가 감독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이 그 원숭이에게만 일어나는 고유한 현상인지 아니면 영장류의 두뇌가 지닌,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능력인지를 밝혀내고 싶었다. 그래서 원숭이들을 더 모아서 세계 최초로 거울 뉴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놀랄 것 없이, 땅콩 실험에서 원숭이들은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전투열 피질의 뉴런들은 그들이 관찰하는 행동을 인식하는 그대로 반응했다.

1994년, 리츨라티 교수는 새롭게 발견된 뇌 부위인 거울 뉴런에 대해 최초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원숭이 뇌의 운동전 피질과 두정 피질에서 발견된 거울 뉴런 네트워크는 원숭이와 인간의 경우 귀 위쪽에서 머리 뒤쪽 방향에 있는 상측두 고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상측두 고랑은 걷고 팔을 흔드는 것 같은 신체 움직임을 추적하여 그것이 걷기, 달리기, 일어서기 등에 의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위협인지를 감지하는 데 집중한다.

인도 출신의 신경과학자 빌리야누르 라마찬드란 박사는 인간이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유용한 정보를 빨리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0만 년 쯤 전에 인간들은 갑자기 문화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라마찬드란 박사는 이 시기에 인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거울 뉴런을 발전시켰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경험 속으로 뛰어드는 이 능력의 결과로 종의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술들이 문화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간다.

거울 뉴런은 단지 무언가를 쳐다보거나 읽거나 혹은 어떤 행동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발화한다. 두뇌가 다른 존재의 동작과 생물학적 움직임을 따라하게 한다는 거울 뉴런 네트워크의 발견은 신경과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 ① 거울 뉴런이 하는 일은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 ② 리츨라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의 경우 거울 뉴런 네트워크가 상측두 고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 ③ 라마찬드란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불을 지피는 방법을 직접 배우는 대신 몇 명이 불을 지피는 광경을 지켜봄으로써 불을 지피는 방법을 확산시킬 수 있다.

- ④ 거울 뉴런 이론에 따르면, 오늘날 CF에서 보여주는 기운차게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나 따뜻하고 향기로운 커피를 음미하는 모습 역시 거울 뉴런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거울 뉴런 이론에 따르면,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 보다는 자동차 판매업체 전시장에 멎진 스포츠카를 전시하여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소비 촉진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 9. 다음 (가), (나)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한편에서는 인격의 개인주의화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별 인격을 사회적 집단에 연결하는 영향력, 이해, 관심 및 관계들이 다음과 같은 상호의존적인 발전의 양상을 보인다.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이 확장되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존재와 행위 면에서의 개인주의는 증가한다. 사회적 집단이 확장될수록 집단 내에서는 이질성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집단이 커지면서 애초에는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던 집단들이 서로 유사해지면서 이들 간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단 내부의 결속을 통해 개인을 집단에 종속시키던 힘이 집단 내부의 이질화 때문에 약해지는 반면, 집단들 간에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점하는 개인들 간의 유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결국 사회적 집단의 확장은 그에 속한 개인들의 자율성과 자유의 여지를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의를 증대시키게 된다.

(나) 사회적 분업이 확대된 결과로 사회적 연대는 변화를 겪게 된다. 사회적 분업의 수준이 낮을 때의 연대는 개인들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가정하며 개인의 인격이 집단 속에 흡수되는 기계적 연대이다. 반면 분업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는 유기적 연대는 개인이 고유한 행동영역을 갖고 개성을 지니는 경우에 가능하다. 노동이 더 분화될수록 개인은 점점 더 사회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활동은 더 전문화될수록 더 개인적이 된다. 그 결과 개인의 창의성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는 여지를 더 남긴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독자적일수록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이것은 우리가 고등동물의 신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비슷하다. 고등동물의 각 기관은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과 자율성을 지니며 이들 간의 조정과 조율은 고도로 발달한다. 사회에서도 유기체적 통일성은 각 부분의 개체화가 더 현저하게 진행될수록 더 강화된다.

- ① (가)는 집단의 확장을, (나)는 분업의 발달을 개인화의 동력으로 생각한다.
- ② (가)에서는 사회적 집단이 확장되면서 집단 내의 이질성은 늘어나지만 집단 간의 이질성은 줄어든다고 본다.
- ③ (나)는 개인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회에 대한 의존은 더 심화된다고 본다.
- ④ (나)는 사회적 분업의 확대로 사회적 연대가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변화한다고 본다.
- ⑤ (가)와 (나) 모두 개인화의 결과 사회 내부의 결속이 약해진다고 본다.

10. 다음 글의 관점에서 볼 때 ㉠의 탐구 과제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과학적 인식이란 인식의 결과가 진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①문화적, 사회적 삶에 관한 경험 과학에서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진리가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존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원리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구속력 있는 규범과 이상을 발견하여 그것으로부터 실제에 필요한 처방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경험 과학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가치 판단이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이상을 기초로 하며 따라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의미 있는 인간 행위의 궁극적 요소에 대해 고찰해 보면, 인간의 행위는 목적 및 수단의 범주와 결부되어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욕하는 것은 그것 자체의 가치 때문이든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의욕한 것을 달성하는 데 소용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과학적 고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 문제이다. 우리는 어떤 수단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효과적 수단인지에 대해 저울질할 수 있다.

의욕의 소유자인 인간은 자신의 양심과 개인적인 세계관에 의거하여 가치들을 저울질하고 선택한다. 경험 과학은 인간에게 모든 행위가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행위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일정한 가치에 가담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다른 가치에 반대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 물론 가치들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들의 소관 사항이다.

개인들이 가치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때 경험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욕하는 것 자체의 의의를 알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의 근저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이념들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경험 과학은 개인들이 선택한 목적의 의의를 알려줄 수 있다. 개인들이 실제로 추구한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이념들을 정신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문화적, 사회적 삶에 관한 경험 과학의 본질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경험적 현실을 사유를 통해 정리하려는 과학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다.

경험 과학은 그 누구에게도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should)를 가르쳐줄 수는 없고, 단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can) 또한 사정에 따라서는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will)를 가르쳐줄 수 있을 뿐이다. 어떤 가치를 수용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로서 삶과 세계를 사변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치에 관한 학문의 과제이며,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경험 과학의 대상은 아니다. 과학적 인식과 가치 판단을 구별하는 것, 그리하여 사실의 진리를 직시해야 하는 과학적 의무와 자신의 이상을 옹호하는 실천적 의무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인간의 삶을 그 문화적 의의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경험 과학을 문화 과학이라고 부르며, 사회 과학은 그러한 문화 과학의 범주에 포함된다.

-〈보기〉

- ㉠. 갑이 자신의 궁극적 이념으로 애국주의 대신에 세계시민주의를 선택한 것은 잘못임을 지적한다.
- ㉡. 을이 중시하는 개인의 자유, 권리, 자율성 등의 가치가 공동체주의보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가깝다는 점을 밝혀 을이 선택한 목적의 의의를 알려줄 수 있다.
- ㉢. 병이 자본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시장 폐지 정책이 부적절한 정책임을 지적한다.

- ①  $\perp$   
③  $\neg, \perp$   
⑤  $\neg, \perp, \vdash$

11. 다음 <조건>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Ⅲ. <조 건>

- 남은 빵은 열 개이며, 아몬드빵, 초코빵, 땅콩빵, 딸기빵, 생크림빵이 각각 두 개씩 남아 있다.
- 동준, 민혁, 영섭, 창호 네 사람이 남은 열 개의 빵을 모두 구매하였으며, 이들이 구매한 빵의 수는 모두 다르다.
- 빵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같은 종류의 빵을 두 개 구매한 사람도 없다.
- 동준이와 영섭이가 구매한 빵 중에 같은 종류가 하나 있으며, 영섭이와 민혁이가 구매한 빵 중에도 같은 종류가 하나 있다.
- 동준이와 민혁이가 동시에 구매한 빵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 동준이는 딸기빵과 땅콩빵은 구매하지 않았다.
- 영섭이는 아몬드빵과 생크림빵은 구매하지 않았다.
- 창호는 딸기빵을 구매했다.
- 민혁이는 총 네 종류의 빵을 구매했다.

- &lt;보기&gt;

- ㄱ. 아몬드빵은 동준이와 민혁이가 구매했다.  
 ㄴ. 딸기빵은 창호와 영섭이가 구매했다.  
 ㄷ. 땅콩빵은 영섭이와 민혁이가 구매했다.  
 ㄹ. 초코빵은 민혁이와 창호가 구매했다.  
 ㅁ. 생크림빵은 동준이와 창호가 구매했다.

- ①  $\neg$ ,  $\sqsubset$   
 ②  $\neg$ ,  $\square$   
 ③  $\sqcup$ ,  $\sqsubset$   
 ④  $\sqcup$ ,  $\sqcap$   
 ⑤  $\sqcap$ ,  $\square$

## 12. 다음 글을 읽고 난 사람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은 근본적으로 비언어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수용되어 왔으며, 일부는 의사소통 능력 중 비언어적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에 이를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비언어적 심리 처리과정의 붕괴가 언어 능력의 붕괴보다 더 크게 일련의 학습 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언어성 학습장애(NLD)의 개념이 성립된 지는 30년 이상 되었다. 이는 온타리오 남부에 있는 윈저대학교의 바이런 루크(Byron Rourke) 박사와 동료들의 작업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들은 비언어성 학습장애 증후군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일차적, 이차적, 삼차적인 신경생리학 처리과정의 결손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비언어성 학습장애 성인의 결손을 다룬 문헌들은 이것이 뇌의 손상으로 인한 이차적인 손상이며, 차별적 진단의 수용, 적절한 확인, 재정 지원, 교사교육, 중재계획 등에 있어서 아직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비언어성 학습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언어발달이 빠르고, 고난이도의 어휘력과 일반 상식을 갖추고 있으며 풍부한 언어능력을 보인다. 잘 발달된 언어 능력, 훌륭한 작동기억, 초기 음운 인지 기술 때문에 비언어성 학습장애로 진단을 받은 개인들의 의뢰 사유는 종종 학업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들에 집중된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교사는 비언어성 학습장애 학생들을 처음 관찰한 결과 ‘행동, 사회 및 감정부분에서의 우려’, ‘감각 입력에 문제가 있음(예: 큰 소리나 밝은 빛 등에 과도하게 민감함)’, ‘운동이 서툴고, 어설피며, 협력이 잘 되지 않음’, ‘친구를 사귀거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다양한 청자에게 적합한 대화 수준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개인적인 영역과 경계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등의 증상 중에서 일부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많은 비언어성 학습장애 학생들이 우수하거나 매우 우수한 언어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과 함께 살거나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수께끼와 같으며, 그와 같은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학습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타협하는데 극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은 어휘나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에 종종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조금 더 어려운 색칠하기, 쓰기와 다른 소근육 과제들은 지루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으로 영재성 평가에 의뢰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조숙한 언어 능력보다 감정적 조숙이 포함되는 비언어적 능력이 실제 학습에서 더 요구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한편,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언어성 학습장애인들의 언어능력 강제는 방패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호언장담하고, 지나칠 정도로 말이 많거나 언어적 공격을 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어능력을 개인의 일반적인 지능에 대한 예측변수로 이해하므로, 비언어성 학습장애인들이 그들의 뛰어난 언어 능력처럼 다른 임무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비언어성 학습장애인들은 실질적인 임무완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교묘한 말로 빠져나오며, 단어 사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재능은 실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책임감이 위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은 종종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약속하여 실망하게 되고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비언어성 학습장애를 가진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도 이상과 현실 사이의 모순에 따른 당연한 결과에 자주 좌절감을 느낀다.

- ① 영수: 비언어성 학습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성립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비언어성 학습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이차적 손상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었구나.
- ② 민아: 언어성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 비언어성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휘나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
- ③ 범재: 비언어성 학습장애는 비언어성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 본인에게만 이상과 현실 간의 모순을 일으킬 수 있겠군.
- ④ 석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과 실질적 임무 수행 능력이 반비례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보군.
- ⑤ 다솜: 밝은 빛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운동이 서툴며, 다양한 청자에 적합하게 대화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있다면 비언어성 학습장애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

## 13. 다음 글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전제는?

이 문서함은 지적재산관리부에서 온 것이 아니면 공보부에서 온 것이다. 지적재산관리부에서 온 문서함에는 모두 보안등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서함은 보안등급 표시가 없다. 이 문서함이 공보부에서 온 것이라면 이 문서함은 언론사 배포 문건을 담고 있거나 내부 회람용 문건을 담고 있을 것이다. 언론사 배포 문건을 담고 있는 문서함에 개봉 날짜 표시가 없다면, 그 문서함은 잠기지 않았다. 개봉 날짜가 표시된 문서함들은 모두 보안등급 표시가 되어 있다.

— <결론> —

이 문서함은 내부 회람용 문건을 담은 것으로 공보부에서 온 문서함이다.

- ① 이 문서함은 잠겨 있다.
- ② 공보부에서 온 어떤 문서함은 잠겨 있지 않다.
- ③ 지적재산관리부의 어떤 문서함은 잠겨 있지 않다.
- ④ 이 문서함은 개봉 날짜 표시가 없다.
- ⑤ 잠기지 않은 문서함은 개봉 날짜 표시가 없다.

## 14.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뇌는 무척 섬세하다. 그러나 뇌 자체에는 통각수용기가 없다. 그래서 압박하거나, 으깨거나, 잘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대뇌피질이 직접적인 기계, 화학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뇌피질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19세기까지 활용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뇌세포가 손상되더라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확실히 예비력이 남아돈다. 그래서 축구선수는 매번 헤딩을 한다든가 하는 상당수의 뇌세포가 손상을 당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예비력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를 은퇴한 일부 프로 권투선수에게서 확실히 볼 수 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뉴런을 손실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이 진행되곤 한다. 이런 미만성 뇌손상(diffuse brain injuries)의 위험과는 별개로, 뇌의 특정 부위의 직접적 손상과 그에 따른 기능의 상실 위험도 존재한다. 가령 몸에 마비가 온다거나, 언어나 시력을 상실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외상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한 단단한 외피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두개골이 한다.

두개골은 몇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봉합선을 따라 결합되어 있다. 이 지그재그로 된 선은 성인 두개골의 표면에서 볼 수 있다. 배아가 발달되는 동안 두개골의 뼈는 서로 붙어서 떠다닌다. 이것은 두개골이 극도의 힘을 필요로 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두개골은 뇌를 성장하게 해주고, 태아가 산도를 통과할 때 머리를 압착시켜준다. 태어난 후에 두개골 정수리에 두 개의 틈새가 남아 있다. 작은 틈인 뒤숏구멍은 머리 뒤쪽으로 향하고, 큰 틈인 앞숏구멍은 정수리의 앞쪽에 있다. 두 개의 숏구멍은 18개월이 되면 닫히고 그 자리는 머리뼈로 신속하게 봉합된다. 그리고 나면 유일하게 열려 있는 곳은 두개골 바닥에 있는 큰구멍뿐이다. 이 큰구멍은 척수가 신경섬유다발을 팔다리와 신체 기관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한 두개골 바닥 앞쪽으로 그보다 훨씬 작은 여러 개의 대칭적인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 뇌신경이 두개골 밖으로 나간다. 두개골의 내부는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세 개의 절단면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앞머리뼈우묵, 중간머리뼈우묵, 그리고 뒷머리뼈우묵이다.

머리뼈의 두께는 균일하지 않으며, 뇌의 근본적인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진화는 두개골을 균형적으로 발달시켰다. 그리하여 두개골은 보호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가벼워졌다. 그것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두부 손상에서 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손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두개골의 앞뒤 부분은 비교적 두껍지만 측두엽이 자리한 옆부분은 다소 얇아 외상에 취약하다. 더욱이 두개골을 통과하는 이 지점의 혈관에서 출혈을 일으키면 두개골이 보호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인 뇌에 급속하게 압력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두개골은 외상으로부터 뇌를 아주 우수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내부 용적이 증가하면 밀봉되고 단단한 외피 안에서 압력이 증가해 그로 인해 뇌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성인의 평균 머리 무게는 4.5kg에서 5kg이다. 머리를 꼳꼳이 세우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의 근육군이 두개골 표면에 고정돼 있다. 이 중 가장 방대하고 가장 강력한 근육군은 뒤쪽, 목, 어깨에 있으며 머리 뒤쪽 머리뼈에 붙어 있다. 일부에선 이 근육들이 긴장성 두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류의 두통은 진통제가 잘 듣지 않으며 사실상 진통제의 과다 복용이 오히려 두통을 더 일으킬 수 있다. 마사지와 자세 교정 같은 간단한 처치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지만 전문약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근육들은 영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수축되기도 한다. 심각한 경우엔 머리가 한쪽으로 영원히 당겨져버릴 수도 있다. 기운목이라고 하는 증상이다.

- ① 두개골을 통과하는 지점의 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나 뇌에 압력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해 심각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 ② 은퇴한 프로 권투선수의 경우 미만성 뇌손상의 위험으로 인해 몸에 마비가 온다거나 언어나 시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 ③ 두개골은 뇌를 성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외상으로부터 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 ④ 두개골의 앞뒤 부분은 다소 얇아 측두엽이 자리한 옆부분에 비해 외상에 취약하다.
- ⑤ 긴장성 두통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 15. 다음 글을 읽고 빈칸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산티아고 라몬이카할은 과학적 관찰과 미술 사이의 경계선이 추상을 거치면서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경해부학자였지만 미술에도 재능을 보였던 그는 십대 시절에는 회화를 공부했고 자신이 연구한 뇌의 해부도를 직접 그렸다. 사람들은 그가 그 그림을 즉석에서 그렸을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그들의 생각은 빗나간 것이었다. 라몬이카할은 뇌와 척수 부위의 실물을 준비하거나 관찰하면서 오전을 보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야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리곤 했다.

그는 그림과 실물을 비교했다.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분석하고 다시 그렸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가 기억에 의지해 그린 그림이 실물에서 보았던 본질을 포착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되어서야 작업은 비로소 끝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뇌의 특정한 부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체의 뇌를 채집해 절개하더라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마다 특성 있는 개별 뇌라는 구체적인 현실 저변에서 ‘해부라는 추상적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불필요한 세부가 많은 일반적인 표본 사진과는 달리 라몬이카할의 간결한 그림은 어지러운 표본의 세부들 사이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마티스가 그 강의를 들었다면 잘 이해했을 것이다. 그 역시 라몬이카할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마티스는 학생들에게 자주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3층짜리 스튜디오를 갖는 것이다. 1층에서는 모델을 두어 그림 수업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면 아주 가끔 1층에 내려와 모델을 보고 가고, 3층에선 아예 모델을 보지 않고 그림 수업을 하는 것이다.” 추상화는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가며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추상화(化)는 화가도, 작가도, 과학자도, 수학자도, 무용수도 모두 한다. (가)

- ① 예리한 관찰자들은 모든 종류의 감각 정보를 활용한다.
- ② 그리고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 ③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자신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것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이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 ⑤ 핵심은 패턴의 결합방식에서 교묘함과 의외성을 발견하는 재능이다.

16.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생활과 노력을 살펴볼 때 우리의 행동과 욕망이 모두 다른 인간 존재와 결부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인간생활의 본질이 사회적 동물의 본질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남이 만든 음식을 먹고 남이 만든 의복을 입고 남이 만든 집에서 산다. \_\_\_\_\_ (가)

언어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란 다른 고등동물에 비해 참으로 보잘 것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_\_\_\_\_ (나) 개인은 그의 개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태어나는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물질적·정신적 존재를 지배하는 큰 사회적 일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사회에 대한 한 개인의 가치는 그의 감정이나 사고작용, 행동이 얼마나 타인의 선(善)을 증진케 하는가에 달려 있다.

\_\_\_\_\_ (다) 우리의 인간 평가의 기준은 얼핏 보면 그 사회성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이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옳지 못하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는 모든 가치 있는 것, 즉 물질적·정신적·도덕적인 것들이 모두 몇 사람의 창조적인 개인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점은 이전 세대로 소급해 보면 명백해진다. 불의 사용, 식용 식물의 재배, 증기기관 등 이 모든 것들이 개인에 의하여 발견된 것들이다. 오직 개인만이 사고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규제할 새로운 도덕적 규범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창조적이며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개성적 인격 없이는 사회의 발전이란 생각할 수 없다. \_\_\_\_\_ (라) 그러므로 사회의 건전성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독자성과 더불어 그들 사이의 긴밀한 정치적 단결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 <보 기> —

- ㄱ. 우리의 지식이나 신념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창조한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다.
- ㄴ. 이 점에 비추어 우리는 한 개인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 ㄷ. 날 때부터 홀로 있는 사람은 사고력과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 ㄹ. 마찬가지로 사회라는 양육의 지반 없이는 개성적인 인격의 발전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ㄱ   | ㄹ   | ㄴ   | ㄷ   |
| ② | ㄱ   | ㄷ   | ㄴ   | ㄹ   |
| ③ | ㄱ   | ㄷ   | ㄹ   | ㄴ   |
| ④ | ㄴ   | ㄷ   | ㄱ   | ㄹ   |
| ⑤ | ㄴ   | ㄹ   | ㄷ   | ㄱ   |

17. 다음은 어떤 학자의 강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내가 지적한 세 번째 문제는 역사에서 예언의 역할이다. 역사란 과학과는 달리 미래를 예언할 수 없으므로 역사로부터는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오해 투성으로 에워싸여 있다. 이제 과학자들은 예전에 그랬던 것만큼 열심히 자연의 법칙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과학의 법칙이란 실제로는 경향에 관한 설명, 즉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또는 실험실의 상태 속에 있을 경우에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그 법칙은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할 수 있다고 공언하지는 않는다. 중력의 법칙은 저 특정한 사과가 땅에 떨어질 것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 사과를 따서 광주리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빛은 직진한다는 광학의 법칙은 어느 특정한 광선이 어떤 방해물에 의해서도 굴절되거나 흩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말한 것이 그 법칙들은 가치가 없다거나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대물리학 이론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만 취급한다고들 말한다. 오늘날 과학에서는 귀납법이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란 그저 개연성이나 합리적인 신념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상의 성과들을 오직 특수한 작용에서만 그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이나 지침으로 간주하려는 생각도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콩트(1798-1857, 프랑스의 철학자)가 지적했듯이 “과학에서 예견이 나오고 예견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역사에서 예언의 문제에 관한 실마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보편적인 것과 유일한 것을 구별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사가는 일반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가는 비록 특정한 예언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행동에 대한 타당하고도 유용한 일반적인 지침을 준다. 그러나 그는 특정한 사건을 예언할 수는 없는 데, 그 이유는 특정한 것은 유일하기 때문이며 또한 거기에 우연이라는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별은 철학자들에게는 성가시겠지만 보통사람에게는 완전히 명백하다. 만일 한 학교에서 두세 명의 아동이 홍역에 걸렸다면, 여러분은 그 유행병이 퍼질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예언이라 부르기로 한다면, 그 예언은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일반화에 근거하는 것이며, 타당하고도 유용한 행동의 지침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은 찰스나 메리가 홍역에 걸릴 것이라는 식의 특정한 예언을 할 수는 없다. 역사가가 하는 일도 이와 똑같다.

— <보 기> —

- ㄱ. 역사가의 예언 역시 타당하고도 유용한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다.
- ㄴ. 우연성은 역사가가 특정한 사건을 예언할 수 없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ㄷ. 과학자의 법칙은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부여된다.
- ㄹ. 특정한 일을 예언하는 점쟁이의 예언은 역사가의 예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8. 다음 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플라톤 이후 현재까지 정의에 관해 논하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지니고 있는 전제는 ‘철학에서 옳다고 제시할 수 있는 분배 체계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의는 인간이 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정의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정의의 원칙들은 그 형식에서 다원주의적이다. 권력, 명예, 성원권, 부, 여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이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다.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의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하다. 돈은 성직의 영역에서 부적절하며, 이것은 다른 영역에 대한 침해가 된다. 통상적인 의미의 시장이라면 경건성이나 신앙심이 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매매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려는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것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지배적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평등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독점’이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 주장은 독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富)가 지배적 가치이면서 광범위하게 공유된다면, 어떤 다른 가치가 독점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이 상품으로 나와 있고 모든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돈을 갖고 있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이런 사회를 ‘단순 평등’ 체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단순 평등 체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자유 교환은 결국 부의 불평등, 나아가 다른 가치들의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점의 효과나 제한이 아니라 지배의 축소를 추구해야 한다. 지배에 대한 비판은 분배들의 실질적인 다원성을 새로운 모습으로 제시할 것이다. 서로 다른 가치들이 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지만 어떤 가치도 다른 가치를 지배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이런 사회를 ‘다원적 평등’ 체제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할 것이지만, 불평등이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증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원적 평등 체제는 가치의 지배를 불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나 자녀 취학 등에서 우선권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다방면에서 재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 또한 지배 계급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모든 분배 영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개념이 아예 개입할 수 없는 일부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적 평등 체제가 각각의 가치 영역에서의 독점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가치의 지배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불평등의 심화를 막아 준다고 볼 수 있다.

- ①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의 분배 방식이 서로 다르다면 안 된다.
- ②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를 함께 분배받아서 안 된다.
- ③ 사회적 가치 X의 독점은 허용되지만 사회적 가치 Y의 독점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가치 Y를 분배받아서 안 된다.
- ⑤ 사회적 가치 X가 사회적 가치 Y를 지배하고 있다면, 사회적 가치 X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19.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나는 세계를 다수의 실재들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한다. 한 실재에서 다른 실재로 옮겨갈 때, 나는 그 이동을 일종의 충격으로 경험한다. 이 충격은 그 이동에 수반하는 주의력의 전환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이러한 전환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다수의 실재들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재로서 나타나는 실재가 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실재이다. 그 특권적 지위는 지배적인 실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의식의 긴장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고조된다. 즉, 일상생활은 가장 육중하고 긴박하며 강렬한 방식으로 의식에 부과된다. 그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약화시키는 것조차 어렵다. 결론적으로 일상생활은 나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요한다. 나는 일상생활을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로 경험한다. 일상생활의 실재 안에서 완전히 갇힌 상태로 존재하고 그 실재를 이해하는 일은 나에게 정상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그것은 나의 자연적 태도를 구성한다.

나는 일상생활의 실재를 하나의 질서정연한 실재로 이해한다. 그 실재의 현상들은 유형들 안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데 이 유형들은 내 마음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강요된 것이다. 일상생활의 실재는 이미 객관화되어 나타난다. 즉, 그 실재는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으며, 내가 무대에 나가기 전에 대상으로 지정되어 온 대상들의 질서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지속적으로 나에게 필수적인 객관화를 제공하며, 이 객관화를 이해하게 해주고 일상생활을 나에게 의미 있도록 만들어주는 질서를 사실로 상정한다. 나는 지리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살고, 통조림 따개에서 스포츠카에 이르는 도구들을 사용하며, 역시 어휘들에 의해 질서가 부여되는 인간관계의 망 안에서 산다. 이런 방식으로 언어는 사회 속에서 나의 삶의 지표를 표시해주며 내 삶을 의미 있는 대상으로 채워준다.

- ① 일상생활의 실재는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실재이다.
- ② 한 실재에서 다른 실재로 옮겨갈 때 주의력의 전환이 수반된다.
- ③ 나에게 일상생활의 실재 이외의 다른 실재는 무질서로 간주된다.
- ④ 일상생활의 실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재로 나타난다.
- ⑤ 언어는 일상생활의 실재를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20. 다음 (가)~(마)에 대응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모든 국가는 무정부주의 세계에 있다.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자신을 보호해 줄 야간경비원이 없는 세계다. 때문에 저마다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다. 각 나라가 장래의 생존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쟁국을 희생시키고 자국의 힘은 키우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가상적국에 대항하여 유리한 점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쓸 수도 있다. 여기에는 거짓말도 포함된다. 현실에 있어서 국가 간 거짓말은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서로 다른 논리에 따라 작동한다. 다음은 국가들이 서로간에 거짓말을 하는 유형이다.

- (가) 지도자가 특정 군사력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경쟁국에게 그 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
- (나) 한 나라가 경쟁국을 상대로 실제 전쟁을 일으킬 의도가 없는데도 마치 공격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그 나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
- (다) 한 나라가 동맹국들이 자신들에게 위협한 경쟁국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걱정될 경우, 적대국의 능력이나 행동에 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동맹국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경우
- (라) 지도자들이 때때로 적을 억제하거나 심지어 강제하려는 목적으로 자국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우
- (마)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대적인 의도를 오히려 축소하는 경우

<보 기>

- ㄱ. 나토 동맹의 공식 입장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서유럽을 공격하고 독일 국경을 넘어 진군하기 시작하면 나토는 핵무기를 사용해 소련과 동맹국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아가 독일 내 국경을 따라 당초 출발 지점까지 격퇴시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로버트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미국의 일부 중요 정책 결정자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이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나중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소련의 대규모 재래식 공격이 닥치더라도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ㄴ.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초 미 국가안전위원회 관리를 아시아로 보내 북한이 핵무기 제조의 핵심 요소인 우라늄 헥사플루오라이드를 리비아에 판매했다고 말하게 했다. 하지만 리비아에 우라늄 헥사플루오라이드를 실제로 판 것은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었다. 파키스탄이 처음 그 화합물을 구한 곳이 북한일 수는 있지만 북한이 그 물질을 파키스탄에 넘길 때 리비아에 이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주었음을 입증하는 공식 기록은 없다. 실제 확보된 증거만으로 보자면 북한-파키스탄, 파키스탄-리비아 간의 거래는 별개의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당시 중국, 일본, 한국이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의 심각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런 류의 거짓말에 관여했다.
- ㄷ.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은 서부전선의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비밀리에 탱크를 개발했다. 그 과정에서 영국 지도자들은 그 사실에 관해 일련의 거짓말을 했다. 영국 지도자들은 신형 탱크를 두고 무장 전투차량이나 육상선박이 아니라 전방전선으로 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개발한 물탱크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막후 밀실에서는 육상선박이라 불렀다.

- ㄹ.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마지막 해에 일본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서로간에 맺은 중립 협약을 준수했다. 하지만 1945년 2월 알타에서 스탈린은 윈스턴 처칠과 루스벨트에게 다른 약속을 했다. 소련의 붉은 군대가 나치 독일이 패한 후 3개월 안에 일본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일본 지도자들은 이런 밀약이 알타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소련 측 상대에게 물었다. 소련 측 상대들은 일본과 자신들의 관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상호 중립 협약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련은 1945년 8월 8일 일본을 공격했다.
- ㅁ. 히틀러는 1930년대에 자국의 군사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는 독일군의 역량을 부풀려 보임으로써 영국과 프랑스가 1936년의 라인란트 비무장지대의 재무장 같은 자신의 공격적인 외교정책 조치에 간섭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 |   |         |         |         |
|---|---------|---------|---------|
| ① | (가) - ㄷ | (나) - ㄱ | (다) - ㅁ |
| ② | (가) - ㄷ | (다) - ㄴ | (마) - ㄹ |
| ③ | (나) - ㄱ | (다) - ㅁ | (라) - ㄹ |
| ④ | (나) - ㄱ | (다) - ㅁ | (마) - ㄹ |
| ⑤ | (다) - ㄴ | (라) - ㄹ | (마) - ㅁ |

## 21. 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다음은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이면서 영화감독인 앨버트 브룩스가 2011년에 쓴 소설 『2030년 그들의 전쟁』의 내용이다. 2026년 캘리포니아 주 팜 데저트의 도심 한가운데를 달리던 버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버스에는 모두 서른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 아홉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40세 미만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사상자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총기를 난사한 26세의 청년은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내성적이었지만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가 총기를 난사한 이유는 한동안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러다 그가 사건 직전 한 하원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다. 그는 이 편지에서 “나는 평생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대주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위협했다.

(나) 베를루스코니가 총리에 당선되었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었다. 1919년 시작된 이탈리아 국민연금을 두고 ‘곧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했지만,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이 임박한 고령층의 반대에 밀려 국민연금 개혁 시도는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보수 우파를 기치로 내세운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당은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목표 아래 야심차게 연금 개혁에 도전했지만, 이탈리아의 고령층은 자신들의 연금액이 줄어든 것을 우려해 격렬히 반대했다. 베를루스코니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자마자 그의 인기는 순식간에 추락했고, 때마침 부패 스캔들마저 터지면서 정권을 잡은지 단 7개월 만에 실각했다.

(다) 미국은퇴자협회는 국가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고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이는 등 응집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퇴자협회의 로비를 미국에서는 ‘그레이 로비(grey lobby)’라고 부른다. 다른 연령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매우 빈약한 미국에서 유독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발달한 것은 이 은퇴자협회의 활약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공공의료보험 체계가 부실한 미국에서 1965년 노인들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체계인 메디케어(medicare)를 도입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 은퇴자협회였다.

(라) 우리나라는 젊은층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투자가 ‘무상복지’라며 매우 인색하게 굴고 있다. 같은 ‘무상복지’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지출에 대해 한없이 관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투자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비록 회수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기성세대가 은퇴이후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무상복지’가 아니다. 특히 넘쳐나는 자본에 비해 투자할 곳이 줄어드는 성숙한 경제에서는 청년복지가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마) 후한 광무제 때 남만족의 봉기가 일어났다. 광무제는 군대를 파견했지만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명장 마원이 62세의 나이였음에도 출정을 청했다. 광무제가 전장에 나서기에는 너무 늙었다며 주저하자, 마원은 “소신이 비록 나이는 많지만 갑옷을 입고 말도 탈 수 있으니,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말에 홀쩍 올라탔다. 마원은 남만족의 봉기를 제압하고, 그 뒤 대장군이 되어 흉노 토벌에도 큰 공을 세웠다.

- ① (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우호적인 정책이 채택될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을 보여준다.
- ③ (나)와 (다)는 노인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라)는 젊은층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투자는 결코 ‘무상복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⑤ (마)는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고령의 나이가 절대적 제약조건이 아님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2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조사 ‘와’와 ‘과’는 한 형태소의 변이형태들이다. 모음으로 끝난 말 다음에 ‘와’가 오고, 자음으로 끝난 말 다음에는 ‘과’가 온다. 너와 나, 사람과 사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런 식으로 접속조사로 많이 쓰인다.

그런데 와/과는 접속조사만이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도 쓰인다. 예컨대 ‘시민이 경찰과 싸운다’에서 ‘과’는 부사격 조사이다. 동사 ‘싸우다’가 부사격 조사를 포함한 부사어 ‘경찰과’와 호응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동사를 대칭성 동사라고 한다. 대칭성 동사의 주어에는 반드시 짝이 필요하다. 상대도 없이 그냥 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누구랑 같이, 다시 말해 누구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 동사 ‘마주치다’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와 마주쳐야 한다. 또 ‘~와 경쟁하다, ~와 연애하다, ~와 혼인하다, ~와 상담하다, ~와 어울리다, ~와 합치다’와 같은 동사들도 대칭성 동사이다.

대칭성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와’나 ‘과’는 두 주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접속조사가 된다. 예컨대 ‘나는 너와 연애한다’라는 문장의 부사격 조사 ‘와’는 이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나와 너는 연애한다’라는 문장에서는 접속조사로 쓰인다. 물론 뉘앙스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은/는은 흔히 토픽, 화제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그래서 ‘나는 너와 연애한다’는 ‘내 얘기를 해보자면, 너와 연애해’ 그런 뜻이다. ‘나와 너는 연애한다’는 ‘나와 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서로 연애해’ 이런 뜻이다. 그렇지만 뉘앙스는 문법 수준에서는 분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칭성 동사가 쓰일 때 그 와/과는 자유롭게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사격 조사 와/과와 같이 쓰이는 것으로 대칭성 동사 말고 비교형용사가 있다. 비슷하다, 닮다, 다르다, 동일하다, 똑같다, 상이하다, 유사하다, 이런 말들 역시 반드시 주어의 짝이 필요하다. ‘나는 ~와 비슷하다’고 해야지, ‘나는 비슷하다’는 말이 안 된다. ‘나는 달라’라는 말이 흔히 쓰이긴 하지만, 그건 ‘달라’ 앞에 뭔가가 생략된 것이다. 가령 ‘나는 어느 세상 사람들과 달라’라는 의미인 것이다.

비교형용사와 쓰이는 와/과도 대칭성 동사와 함께 쓰이는 와/과처럼 자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나는 너와 유사하다’와 ‘나와 너는 유사하다’, 이 둘은 문법적으로 뜻이 같다.

비교형용사의 특징 중 하나는 이른바 비교구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교구문이란 ‘~처럼’, ‘~같이’, ‘~보다’와 같은 말을 포함하는 구문이다. ‘나는 너처럼 비슷하다’, ‘나는 너보다 동등하다’, ‘나는 너처럼 같다’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다.

- ① ‘철회는 영지보다 다르다’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다.
- ② ‘나와 그녀는 우연히 마주쳤다’에서 ‘와’는 대칭성 동사와 함께 쓰인 부사격 조사이다.
- ③ ‘나리는 연희와 닮았다’에서 ‘와’는 비교형용사와 함께 쓰인 부사격 조사이다.
- ④ ‘오빠는 똑같아’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다.
- ⑤ ‘나는 경호와 결혼했다’와 ‘나와 경호는 결혼했다’는 문법적으로 의미가 구별되지 않는다.

## 2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박세당(朴世堂)은 주희(朱熹)의 사상을 고원하다고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도덕경(新註道德經)』에서 도리어 주희의 형이상학적 경전 해석 방식을 수용하였다. 반면 홍석주(洪奭周)는 주희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그의 『도덕경(道德經)』 주석, 즉 『정노(訂老)』에서 주희의 형이상학적 경전 해석 방식을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양자의 사상이 『도덕경』 주석에서 자신의 근본적 입장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박세당이 『도덕경』을 주희의 형이상학적 경전 해석 방식, 곧 체용론으로 주석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문(文)의 근본이 질(質)에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홍석주가 고원하게 보이는 노자의 사상을 평이하게 주석한 것은 학문의 근본이 문식(文識)에 있지 않고 실질(實質)에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홍석주가 『도덕경』을 주석한 목적을 주희의 사상과 연결시켜 보면, 의리를 주로 하는 주자학의 근본도 결국 경제적 요소와 학문적 실천성에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박세당이나 홍석주가 『도덕경』 주석을 통해 이루려 했던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들은 각기 주희의 사상에 대해 이탈과 계승이라는 상반된 입장에 있다. 박세당이 『도덕경』을 주희의 형이상학으로 풀이한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주희를 혹독하게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가 의도적으로 주희의 고원한 경전 해석 방식이 『도덕경』의 주석에나 적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홍석주가 『도덕경』을 가능한 한 평이하게 주석한 것은 박세당의 노자 주석을 비판함으로써 주희의 입장을 되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보기에 박세당과 같이 『도덕경』을 주석하는 것은 노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희의 사상을 함부로 남용한 것이다. 주희의 사상에 대해 홍석주는 학문의 실천성과 경제적 요소가 풍부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학자들은 시대적인 모순을 극복함에 있어 제각기 주희의 사상에 대해 서로 계승과 이탈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비록 그들이 주희의 사상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을지라도 \_\_\_\_\_는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 후기 실학이 주희를 이탈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주희를 계승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실학에 관한 연구도 이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주자학을 계승한 학자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① 문에 치우친 시대상을 바로잡아 실질을 회복해야 한다.
- ② 노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 ③ 주희의 사상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④ 특정한 사상을 고원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⑤ 학자들 간의 경전 해석 방식의 차이를 융통성 있게 수용해야 한다.

26.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인간의 성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X염색체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X 혹은 Y염색체와 짝을 이루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서 X염색체를 물려받아 XX가 되면 여자아이가 되고 Y염색체를 물려받아 XY가 되면 남자아이가 된다. 사실 성별이 결정되기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사건이 시계태엽 맞물리듯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당신은 남자아이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남자 되기 경쟁’이라는 것이 있다. 태아는 일찍부터 특정 유형의 지방세포를 형성하는데, 구조적 결함이 생겨 여자아이가 될지 모르는 XY염색체의 태아를 남자아이가 바꾸려면 특정한 밀도의 지방세포가 필요하다. 적당한 밀도의 지방세포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발시켜 태아의 뇌를 남성의 뇌로 전환한다. 일단 뇌의 성이 결정되면 이것은 다른 모든 신체 조직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성별에 관한 문제는 포유류 이외의 종들을 관찰하면 더 복잡하다. 새는 알을 낳는 암컷이 XY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털이 화려하고 노래를 부르며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탐색하는 수컷이 XX염색체를 갖는다. 학자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새의 염색체를 일반적으로 W와 Z로 구분하는데, 이는 각각 인간의 X와 Y염색체에 해당한다. 명칭을 달리 했다고 해서 조류의 성별 결정 방식이 포유류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 거북이나 악어로 관찰의 범위를 넓히면 문제는 더 복잡하다. 거북이나 악어의 성별은 알을 부화하는 동지의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악어는 동지 온도가 따뜻하면 수컷이 되고 차가우면 암컷이 되는 반면, 거북이는 이와 반대다. 잘 알려진 것처럼 벌의 암컷은 두 세트의 염색체(3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수컷은 하나(16개의 염색체)뿐이다. 수벌은 무정란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양놀래깃과의 바닷물고기들과 같이 산호초 주변에 서식하는 수많은 작은 물고기의 성별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이들은 전부 암컷으로 태어나는데, 주변에 수컷이 하나도 없으면 가장 지배력 있는 암컷이 재빨리 변성 과정에 착수하여 마법처럼 수컷으로 변한다. 이 암컷, 아니 수컷이 죽으면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성별이 둘로 나뉘는 모든 종 중에 가장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종은 아마 ‘보넬리아’라는 무척추동물일 것이다. 보넬리아는 처음에는 모두 유충 상태로 물속에 둥둥 떠다닌다. 그러다가 바위나 다른 기질에 성공적으로 붙은 유충은 암컷이 되고, 다른 곳에 붙기 전에 암컷에게 잡아먹혀 자궁으로 들어간 유충은 수컷이 된다. 이 수컷 유충들은 암컷의 자궁 안에서 남은 생을 안전하게 보낸다. 암컷의 자궁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수컷의 수는 최대 20마리다.

- ① 새의 암컷은 WW 염색체를 갖고, 수컷은 WZ 염색체를 가진다.
- ② 여자아이의 경우에도 XX염색체 뿐만 아니라 XY염색체를 가질 수 있다.
- ③ 거북이와 악어의 알이 동일한 환경에서 부화되는 경우, 거북이와 악어의 성별은 같다.
- ④ 양놀래깃과의 바닷물고기들은 수컷으로 태어났다가 변성 과정에 착수하여 암컷으로 변할 수 있다.
- ⑤ 바위나 다른 기질에 성공적으로 붙지 못한 보넬리아 유충은 모두 암컷에게 잡아먹혀 생을 마감하게 된다.

27. 다음 글에 제시된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당사자에게 나쁜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죽음은 왜 나쁜가? 이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은 죽으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으면 삶이 선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살아있다면 얻을 수 있는 삶의 좋은 모든 것들을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박탈 이론’이라고 한다.

박탈 이론에 대해 A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무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또는 사실이였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신의 죽음이 자신에게 나쁜 것이 되는 시점을 지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죽음은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미 죽었다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나쁜 것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 되는 시점을 지목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A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내가 존재할 때만 무언가가 나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나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B는 삶의 좋은 면을 박탈당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비존재 자체가 우리가 무언가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한편 C는 박탈 이론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내가 죽고 난 이후의 기간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시간은 아니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 영점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영점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우물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죽은 ‘이후’에 무한한 비존재의 상태가 이어진다고 해서 우물해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D는 우리가 ‘더 나중에 죽는다면’이라고 상상할 때와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이라고 상상할 때 떠올리는 상황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령 80세가 되는 해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의 경우, 그 사고가 없었다면 85세나 90세까지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더 이후에 죽는다고 상상하는 것은 더 긴 삶을 상상하는 것이다. 반면 내가 더 이전에, 예컨대 1800년에 태어났다고 상상하는 것은 더 오래 이어지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앞당겨진 삶을 상상하는 것에 불과하다.

— <보 기> —

- ㄱ. A와 C는 박탈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 ㄴ. 죽음이 자신에게 나쁜 것이 되는 시점을 지목할 수 있다면 A의 주장은 약화된다.
- ㄷ. B는 삶의 좋은 면을 박탈당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전제한다.
- ㄹ. 사후 기간의 비존재와 생전 기간의 비존재를 대칭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박탈 이론을 강화시키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중 『인조실록』에는 “밤에 기운과 같은 흰 구름 한 줄기가 동쪽에서 일어나 곧바로 서북방을 가리켰는데 길이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 남서쪽에 불빛 같은 기운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존재한다. 『인조실록』에는 무려 약 50회나 이 수상한 불빛의 출현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특히 1624년(인조 2년)에서 1626년(인조 4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이 불빛 기운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이외에도 B.C. 35년경인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때의 『삼국사기』 기록을 시작으로 하여 조선 중기 때까지 무려 700여 회나 등장한다. 도대체 이 불빛 기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2008년 ‘영국 왕립천문학회’가 발간하는 과학전문지에 「불빛기운은 한국의 오로라였다」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에 의하면 1626년 초는 태양 흑점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였는데, 당시 기록의 시간대와 관측 방향 등을 분석한 결과 1624년부터 1626년까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연평균 20여 차례씩 등장하는 불빛 기운은 오로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로라란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방패처럼 지구 주위를 둘러싼 지구 자기장을 따라 극지 쪽으로 흘러가다가 상층 대기와 부딪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들이 대기 중의 산소 또는 질소와 충돌하면 녹색 또는 적색의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밤하늘을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이는 원인이다. 오로라는 100km~400km 고도의 상층 대기권에서 생기며, 60도~80도의 고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대개 캐나다 중북부, 알래스카 중부, 시베리아 북부 연안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보통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인데,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일 때처럼 하늘에서 한 줄기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장관이 연출된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서 1779년(정조 3년) “불빛과 같은 기운이 있었다.”라는 기록 이후 오로라를 추정케 하는 기록은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럼 고구려 초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수없이 오로라가 관측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책은 11세기 중국 송나라 때 심괄이 지은 『몽계필담』이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 중앙부분을 수평 방향으로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한 작은 영구 자석인 자침을 명주실에 달아매어 방위를 알아내곤 했다. 심괄은 이 책에서 자침은 대략 남북을 가리키지만 그 남북 방향이 진짜 남북(진남, 진북) 방향과는 약간 다르다고 기술했다. 직선으로 이었을 때 지구의 회전축이 되는 것은 바로 진북과 진남이지만, 나침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구 회전축인 진북과 진남이 아니라 지구가 만들어내는 지구 자기장이기 때문이다. 지구 자기장의 북극, 남극은 진북(眞北), 진남(眞南)과 구별해 자북(磁北), 자남(磁南)이라 한다. 다시 말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곳은 자북이고, 실제 지구의 북쪽 중심은 진북이다. 진북과 자북의 차이를 주목한다면 과거 오로라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관측된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의 극지 쪽으로 흘러가다 상층 대기와 부딪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조선의 오로라 현상은 자북이 우리나라 부근에 자리잡고 있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럼 지금은 왜 오로라가 관측되지 않는 것일까?

현재 자북의 위치는 캐나다 서북부와 알래스카 접경지대인 레절루트 베이 부근으로 그 곳은 진북에서 남동쪽으로 약 1천 km 떨어져 있다. 흥미롭게도 자북은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

나라 계속 이동하고 있으며, 자북이 옮겨 다니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구 자기장의 태동 시스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2005년 미국 오리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알래스카에 위치한 자북은 매년 40km정도씩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바로 여기에 조선 시대 때 관측된 오로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 ①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없는 것은 지구 자기장의 태동 시스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② 『인조실록』 기록에 나타난 ‘기운과 같은 흰 구름’이란 오로라의 흰 연기를 우리 조상들이 흰 구름으로 묘사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③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는 북위 37도 32분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 ④ 예전에는 진북이 지금보다 훨씬 한반도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라를 자주 관측할 수 있었다.
- 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오로라를 빈번하게 관측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29. 다음 <보기>를 읽고 옳은 것을 고르면?

— <보 기> —

A회사에서 문건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관련자 다섯 명을 소환하였다. 다섯 명의 이름을 편의상 갑, 을, 병, 정, 무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은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참으로 밝혀진 내용들이다.

- ㄱ. 소환된 다섯 명이 모두 가담한 것은 아니다.
- ㄴ. 갑과 을은 문건유출에 함께 가담하였거나 함께 가담하지 않았다.
- ㄷ. 을이 가담했다면 병이 가담했거나 갑이 가담하지 않았다.
- ㄹ. 갑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정도 가담하지 않았다.
- ㅁ. 정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갑이 가담했고 병은 가담하지 않았다.
- ㅂ. 갑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무도 가담하지 않았다.
- ㅅ. 무가 가담했다면 병은 가담하지 않았다.

- ① 가담한 사람은 ‘갑’, ‘을’, ‘병’ 세 사람뿐이다.
- ②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무’ 한 사람뿐이다.
- ③ 가담한 사람은 ‘을’과 ‘병’ 두 사람뿐이다.
- ④ 가담한 사람은 ‘병’과 ‘정’ 두 사람뿐이다.
- ⑤ 가담한 사람은 ‘갑’, ‘을’, ‘병’, ‘무’ 이렇게 네 사람이다.

3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오늘날 ‘그리스’라는 명칭은 로마인들이 사용한 것으로서 라틴어인 ‘그라이키아’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그리스인 스스로는 자신들을 ‘헬레네스’라고 했다. 헬렌의 자손이라는 뜻이다. 헬렌은 제우스가 일으킨 대홍수로부터 살아남은 데우칼리온의 아들이고, 데우칼리온은 인간에게 불을 전달한 신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다. 하지만 헬레네스가 그리스의 주인이 되기 전인 선사시대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민족이 있었으니, 이들이 오늘날의 터키 영토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었다는 주장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헤로도토스가 펠라르고이라고 명명했던 이들을 오늘날의 그리스인들은 희미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리스인들은 이들 원주민들로부터 수많은 지명, 종교의식, 그리고 신들까지도 물려받았다. 아득한 구석기 시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펠라르고이 신화는 훗날 올림포스 신앙의 바탕이 된다.

한편,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미케네인들은 기원전 12세기경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그리스의 본토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었다. 이때 그리스의 북서쪽으로부터 도리아인들이 남하하면서 미케네인과 충돌하게 되었다. 철기문명을 지닌 도리아인들의 해상침입으로 미케네의 청동기 문명은 결국 종말을 고하였고, 기원전 1100년경부터 도리아인은 그리스의 서부를 본격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또 다른 이민족이 터키의 이오니아 지방에서 그리스의 동부로 진입을 시작하였는데 이들을 이오니아인이라고 부른다. 도리아인과 이오니아인은 큰 충돌 없이 각자의 문화를 발전시키다가 기원전 800년경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헬레네스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따라서 헬레네스란 도리아인, 이오니아인이 주축을 이루는 새로운 통합민족의 탄생을 의미하며 헬라스란 이들이 거주하던 지역의 문화권을 총칭하는 말이다.

역사시대에 이미 물리적으로 혼합된 민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혈통의 순수성을 주장할 수 없었던 그리스인들은 신화적 인물인 헬렌을 조상으로 하여 새로운 혼혈민족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인종의 신체적 특징을 고대의 조각과 그림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때, 그들의 대부분은 검은 곱슬머리에 올리브색 피부를 지닌 인종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메로스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머리를 갈색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여신이나 여인의 모습이 가끔은 금발에 하얀 피부로 묘사 되어 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인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스스로를 동일한 민족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같은 언어로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또한 같은 종교로도 단합되어 있었다. 이들을 동일한 민족으로 묶어준 신앙이 바로 올림포스의 신들로 대변되는 종교인데, 그 종교적 기원은 그리스 땅에서 신석기 문명이 시작되었던 기원전 4,5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하지만 그 주된 내용은 청동기 문명이 시작되었던 기원전 2,800년경부터 크레타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미노아 문명과, 그 문명을 바탕으로 성장한 미케네 문명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관점이다.

- <보 기> —
- ㄱ. 그리스인들을 동일한 민족으로 묶어준 신앙은 펠라르고이 신화를 바탕으로 한다.
  - ㄴ. 그리스의 종교적 기원은 기원전 4,500년 이전에 발달한 미노아 문명에서 비롯된다.
  - ㄷ. 헬레네스들은 선사시대부터 그리스를 장악하였다.
  - ㄹ. 그리스인 중에는 금발에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 ㅁ. 그리스인들은 외모·혈통·언어·종교의 동질성으로 인해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졌다.

- ① ㄱ, ㄹ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3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생시의 낮은 체중이 미국에서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의 신생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가정은 750만건 이상의 출산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다. 새로운 연구는 낮은 체중이 아니라 조산이 신생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임을 시사한다. 임신 기간이 같을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노르웨이에서 태어나는 아기들보다 평균 체중이 더 낮았다. 그러나 동일 임신 기간끼리 비교할 경우 미국 아기들의 사망률은 노르웨이의 아기들보다 높지 않았다. 임신 기간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은 임신 기간 중 흡연을 한 산모들과 흡연하지 않은 산모들의 경우에 체중 미달의 신생아들의 생존율을 비교하는 이전의 한 연구에 의해서 지지된다. 흡연은 나쁜 영양 상태와 마찬가지로 태아의 체중 증가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같은 체중의 신생아들을 비교했더니 “

고 보고되었다. 이 역설적인 결과를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산모의 흡연은 체중 증가를 방해하지만 임신 기간을 줄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체중 신생아들 중에서 흡연하는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임신 기간을 채운 경우가 많지만, 흡연하지 않는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조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아기들의 저체중이 아니라 조산이 비흡연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저체중 신생아들이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 ① 흡연하는 산모의 아기들이 흡연하지 않는 산모의 아기들보다 생존율이 더 높았다.
- ② 흡연하는 산모의 아기들보다 흡연하지 않는 산모의 아기들이 생존율이 더 높았다.
- ③ 흡연하는 산모의 아기들이 흡연하지 않는 산모의 아기들보다 조산할 확률이 더 높았다.
- ④ 흡연하는 산모의 아기들보다 흡연하지 않는 산모의 아기들이 조산할 확률이 더 높았다.
- ⑤ 흡연 여부가 신생아의 체중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 3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계몽이란 인간 자신이 초래한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이란 타인의 안내를 받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미성숙 상태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원인이 이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바로 이것이 계몽의 표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의 지도에서 해방된 뒤에도 일생 동안 미성숙 상태에 머무르는 이유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후견인으로 들어앉는 이유는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이다. 미성숙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편안하다. 만약 나를 대신 하여 양심을 갖고 있는 목사가 있다면, 나는 조금도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것에 대해 보수를 지불할 능력만 있다면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 골치 아픈 일거리를 다 떠맡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몽을 위해서는 자유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해가 없는 자유, 즉 모든 국면에서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성의 공적 사용은 언제나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이성의 공적 사용만이 인류에게 계몽을 가져올 수 있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학자로서 독자 대중 앞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이성의 사적 사용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군무 중의 장교가 상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적합한지 또는 유용한지에 대해 시끄럽게 논의한다면, 그것은 매우 쓸데없는 짓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한 사람의 학자로서 병역의 의무가 갖고 있는 결점을 비판하고 그것을 대중의 판단에 호소하는 것은 정당하게 금지될 수 없다. 시민은 그에게 부과된 조세의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의 학자로서 과세의 부당함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대중 앞에 발표한다면,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의무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종교 문제에서 국민에게 어떤 것도 규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의무로만 생각하는 군주, 따라서 관용이란 존대한 칭호도 사양하는 군주야말로 스스로 계몽된 사람이다. 종교적 계몽을 장려하는 국가 지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입법에 관해서까지 국민이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여 현행 법률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심지어 기존의 법률에 관한 공명정대한 비판까지도 널리 발표하도록 허락하더라도 어떠한 위험도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 ① 시민은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스스로 계몽된 군주는 종교 문제에서 국민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의무로 간주한다.
- ③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의 결핍이 아니라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에 미성숙 상태에 머무른다.
- ④ 자신에게 맡겨진 시민적 지위에서 이성을 사용한 것은 이성의 사적 사용이다.
- ⑤ 계몽을 위해서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필수적이다.

## 3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근일에 국사를 근심하는 사람들이 혹 말하되, 국세(國勢)를 진기(振起)하여 부강하려 하면 하의원(下議院)을 배설(排設)해야 하겠다 하니, 조금 덜 생각한 일이라. 하의원이라 하는 것은 백성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다. 정권을 가지는 사람은 한 사람이든지 몇 만 명이든지 지식과 학문이 있어서 다만 내 권리를 알 뿐만 아니라 남의 권리를 손상치 아니하며, 사사(私事)를 잊어버리고 공무를 먼저 하며 작은 혐의를 보지 않고 큰 의리를 숭상해야 민국에 유익한 정치를 시행할지니, 무식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나 여러 사람이 다스리나 국정을 그르치기는 마찬가지요, 무식한 세계에서는 민주국보다 군주국이 도리어 견고함은 고금 사기와 구미 각국의 정형을 보아도 알지라.

그런고로 어느 나라든지 하의원을 설치하려면 먼저 백성을 흡족히 교육하여 무슨 일이든지 총명하게 의론하며, 대소 사무에 나라 일을 자기 일같이 재미있게 하여야 낭패가 없거늘, 우리나라 인민들은 몇 백 년 교육이 없어서 나라 일이 어찌되든지 당장 자기에게 괴로운 일이 없으면 막연히 상관을 아니 하며, 정부가 누구 손에 들든지 조반석죽(朝飯夕粥)만 하고 지내면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든지 걱정을 아니 하며, 자유니 민권이니 하는 것은 말도 모르고 혹 말이나 들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자유로 알고 남을 해롭게 하여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권리로 아니, 이러한 백성에게 홀연히 민권을 주어서 하의원을 실시하는 것은 도리어 위태함을 속(速)하게 함이라.

또 일본 사람은 서양 개화를 모방하기 전에도 우리보다 백 배나 문명한 사람들이요, 서양 정치와 풍속을 배우기 시작한 후에 주야로 힘써서 30년 동안 세계가 놀라게 진보하였으되, 명치 원년(1868)에 상·하의원을 배설하지 않고 겨우 명치 20~30년에야 국회를 시작하고, 또 상·하의원을 실시하기 전에 오히려 미흡한 일이 있을까 하여, 극히 총명한 위원들을 구미 각국에 파송하여 상·하의원 제도의 과정과 사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채용하였으니, 일본도 이같이 삼가서 하의원을 배설하였거늘, 우리는 외국 사람과 통상 교제한 후 몇 해 동안에 배운 것이 지권연(紙卷煙) 먹는 것 한 가지밖에는 없으니, 무슨 염치로 어느새 하의원을 꿈이나 꾸리오.

이런 망발은 하지들 말고 다만 이번에 독립협회에서 조병식씨가 일을 하듯이, 우리 분내(分內)에 있는 권리나 지켜서 황상 폐하의 덕택으로 정부가 다 맡은 직분들을 하게 되거든, 안으로는 학교를 도처에 실시하여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여 밖으로는 구미 각국에 학도를 파송하여 유익한 학문을 배워다가, 인민의 지식이 꽤히 열려 40~50년 진보한 후에나 하의원을 생각하는 것이 온당하겠도다.

- ①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일 때에는 그 나라의 특수한 경험과 우리의 현재 상황을 엄정하게 비교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정치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 ③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④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경우에 대비하여 백성에게 정권을 주어야 한다.
- ⑤ 국제정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실제로 시행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절한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6. <보기>는 <A>에 대한 반응이다. 이에 근거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A —

시모니데스가 크레온의 아들 스코파스에게 바친 시에 이처럼 적혀 있네.

‘뛰어난 인간이 되기란 실로 어려운 것을

행실과 마음이 하나같이 흠없는-’

이 노래의 앞의 구절은 이렇다네. 역시 같은 사람이 읊었지.

‘어진 피타코스의 말도 잘못이니

뛰어난 인간으로 있기란 어렵다네-’

— <보 기> —

(가) 이 시구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네. 처음에 ‘뛰어난 인간으로 있기란 어렵다’고 말한 피타코스의 말을 비난하고 그의 견해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 어렵다고 했네. 이것으로 보아 자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를 비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같지 않겠나? 그러므로 앞의 말이나 나중의 말이나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다고 보네.

(나) 시모니데스가 비난하고 있는 피타코스의 말은 그 자신의 주장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지요. 피타코스가 어렵다고 말한 것은 시모니데스의 말처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는 것과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 무엇으로 있다는 것과 된다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면, 시모니데스의 말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신들은 땀을 흘려야만 덕을 얻게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란 어렵겠지만, ‘덕의 절정에 이르고 나면 앞에서 겪은 어려움은 나중에는 쉬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이 문제가 된 시구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구하는 것, 즉 철학은 그리스나 크레타나 라케다이몬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많은 소피스트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무식한 듯 가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피스트들과 같은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인들보다 뛰어난 것은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싸움과 용기로 얻어진 것이라고 남에게 인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뛰어난 이유가 상세히 밝혀지면 모든 사람이 지혜를 갖추려고 애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들은 모두 스파르타인의 교육을 예찬하고 공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지혜란 흔히 앞에서 말한 것, 즉 경우에 따라서 마음에 새길 만한 짙막한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식으로 간명한 말을 쓰는 것이 옛사람들의 철학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피타코스의 시구에 ‘뛰어난 사람으로 있기란 어려운 것’이란 말도 지혜 있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이처럼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시모니데스는 지자(智者)로서의 명성을 얻으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피타코스의 명언을 능가할 수 있다면 당시에 명성을 얻으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피타코스의 격언을 과격으로 삼아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그와 같은 시와 노래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① (가)는 <A>의 시구를 비판하고 있다.
- ② <A>에 주어진 시모니데스의 시구가 모순인지에 대하여 (가)와 (나)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③ ‘뛰어난 사람으로 있는 것’과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본다면 (가)의 주장은 타당하다.
- ④ (다)에 따르면, 시모니데스는 피타코스의 격언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자신의 시구에 ‘되기란’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 ⑤ (나)와 (다)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A>의 시구에서 시모니데스는 ‘뛰어난 사람이 되기란 어려우나 그 상태를 지속하여 뛰어난 사람으로 계속 있기란 더욱 어렵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37.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며 충성과 믿음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지나친 혼란이 생기고 예의와 아름다운 형식이 없어진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사람의 감정을 좇는다면 반드시 다투고 뺏게 되며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히게 되어 난폭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의의 인도가 있어야 하며 그런 뒤에야 서로 사양하게 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갖게 되어 다스림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굽은 나무는 반드시 댈나무를 대고 찌서 바로잡은 뒤에라야 곧아지며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에 간 뒤에라야 날카로워지듯이 지금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은 반드시 스승과 법도의 가르침이 있는 뒤에라야 다스려지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편벽되고 음험하여 바르지 않을 것이며, 예의가 없다면 이치에 어긋나는 어지러운 짓을 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옛날 성왕께서는 사람들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편벽되고 음험하며 바르지 않고 이치에 어긋나는 어지러운 짓을 해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제정해 사람들의 감정과 본성을 바로잡고 수직함으로써 이를 올바르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감정과 본성을 길들이고 교화함으로써 이를 올바르게 인도하였다. 이에 비로소 모두 잘 다스려지고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스승과 법도에 교화되고 학문을 쌓으며 예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본성과 감정을 멋대로 버려두고 멋대로 행동하는 데 안주하고 예의를 어기는 자를 소인이라 한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 ①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므로 사회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므로 성왕의 통치가 필수적이다.
- ③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는 하지만 스승과 법도의 가르침에 의해 다스려질 수 있으므로 교육이 필요하다.
- ④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사회의 지배구조는 군자의 소인에 대한 지배로 귀결된다.
- 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는 명제가 거짓임을 논증하기 위한 반명제일 뿐이다.

## 3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키가 100피트보다 작다”라는 합당한 믿음을 믿는다고 하자. 내가 본 바로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설의 입증 사례들이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서커스에서 나는 키가 99피트인 사람을 본다. 이 경우, 서커스장을 떠날 때 나는 모든 사람이 키가 100피트보다 작다는 데 대해서 덜 확신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99피트의 인간은 분명히 또 하나의 입증 사례인데 말이다. 이 역설의 근거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의 말이 우리가 뜻하는 바를 언제나 제대로 담아내는 것은 아니다. 가끔 말들은 우리가 다소 모호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불완전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내가 어떤 인간도 엄청난 높이로, 예컨대 단위가 다를 정도라거나 평균보다 훨씬 더 크거나 등의 높이로 자랄 수는 없을 거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일 수 있다. 여기서 100피트라는 정확한 수치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숫자는 우리 생각에 절대로 있을 수 없을 높이를 나타내기 위한 한 예로서, 떠오르는 대로 말한 것뿐이다. 내가 미터법을 사용한다면 어찌면 나는 “모든 인간은 키가 30미터보다 작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30미터는 98.43피트이므로 그 99피트 인간은 30미터 가설의 반례였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키가 100피트보다 작다”는 가설을 말할 때 우리가 의미했던 것이 99피트 인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느낀다. 이것은 마치 법조문의 문자에는 맞지만 의도에는 맞지 않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 역설에는 또 다른 뿌리가 있다. 이 가설을 놓고 친구와 내기를 걸었다고 하자. 키가 100피트인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나는 내기에서 지게 되고 친구에게 멋진 곳에서 저녁을 내야 한다. 이 가설은 지적인 호기심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기의 정확한 조건뿐이다. 99피트의 인간은 매우 가깝지만 2% 부족하다. 그 사람 정도는 내가 내기에서 이길 기회를 위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99피트의 인간이 나의 가설이 들어맞게 될 가능성에 위협이 된다고 느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인간의 성장과 변이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어서 99피트 인간이 있다는 사실이 주어지면 100피트 인간이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짐을 추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갖는 거의 모든 속성들은 결국에는 다시, 그것도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99피트 인간의 존재는 인간이 약 100피트까지 자라는 것이 유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가 이 가설을 어떤 비본질적인 정보도 없이 검사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해보자. 5번가의 제일 번잡한 곳의 길에 지나가는 보행자를 탐지하는 장치를 매설한다. 그 탐지기 위로 100피트 되는 곳에는 전자안(electric eye)이 설치되어 있다. 누군가 탐지기를 밟으면 전자안은 보행자에 의해서 땅 위 100피트 높이를 지나는 광선이 차단되었는지 감식한다. 기록 장치는 통과하는 모든 보행자들과 특히 키가 100피트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보행자들을 기록한다. 나는 탐지기를 열어 결과를 본다. 기록판에는 “0/310,628”이라고 되어 있다. 310,628명의 보행자가 지나갔는데 키가 100피트인 사람은 없었다(0)는 뜻이다. 310,628명의 보행자들 모두가 그 가설의 입증 사례들이다. 각각의 보행자들은 그 가설을 정확하게 같은 정도로 입증한다. 우리가 보행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100피트보다 작다는 것 뿐인데, 그 보행자들 중 어떤 이가 그 가설을 다른 이보다 더 큰 정도로 입증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키가 99피트인 사람이 5번가를 지나게 되어서 탐지기에 기록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그 가설을 입증할 것이다. 그가 지나간 덕분에 기록판은 “0/310,627”이 아니라 “0/310,628”라고 말할 것이고 나는 그 가설을 아주 조금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남자가 키가 99피트였다는 것,



적인 소수의 책-성서를 위주로 한 신앙서가 대부분-을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읽는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독서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특히 개인적으로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새롭고 잡다한 책에 대한 현대적이고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형태의 다독으로 그 경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보 기>————

- ㄱ. 독서혁명은 사람들의 독서 경향이 ‘정독’에서 ‘다독’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 ㄴ. 독서혁명은 독서량의 증가가 아니라 독자층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 ㄷ. 독서혁명은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보다 앞서 갔다.
- ㄹ. 독서혁명을 통해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독서하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 ㅁ. 독서혁명에 대해 대다수의 엘리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했다.
- ㅂ. 독서혁명을 통해 독자들은 더 이상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독서를 하지 않게 되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ㅂ

④ ㄴ, ㄷ, ㄷ

⑤ ㄴ, ㄷ, ㅂ